

제6강 불교에 대한 질문과 금강경 독해

(1교시)

◆불교와 인도, 인간 우월성, 환경문제

※학습목표: 불교를 인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유와 불교에서의 인간 위치, 불교가 환경 문제의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인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불교

-불교가 힌두교로 대체된 것은 기본적으로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흡입력 때문이다. 내 것이란 정체성이 없을수록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받아들인다.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한 구별에서 온다. 하지만 힌두교에는 자기 정체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모든 것을 껴안는데 그 때, 내적인 자기모순에 대한 반성조차 없다.

▲불교에서 인간의 위치

-신의 중심에서 보자면 분명 불교는 인간중심적이다. 서양 근대철학에 불교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여기에 있다.

-서양의 지성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신의 문제였다. 더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신, 과학과 종교 간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서양 지성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이 신을 상징하지 않은 불교에서 답을 찾으려는 측면이 있다.

▲불교와 환경문제

-현재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동양사상은 자연과 하나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말이다. 다만 우리가 한 쪽으로만 과도하게 경도되어 왔던 것을 보충해주는 측면, 간과했던 것을 돌아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다.

(2교시)

◆불교 신비성의 이용, 유식불교와 관념

※학습목표: 불교가 신비주의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유식 불교가 관념적인가 생각해본다.

▲불교가 신비주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는가?

-Zen Buddhism은 일본의 국가주의를 선불교에 담아 서구에 소개한다. 이때 서양인들에게 불교는 어떠한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교를 신비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이 된다.

▲유식불교는 관념적인가?

-유식불교는 아무런 반성 없이 받아들이는 객관적 실재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주관적 관점을 떠난 객관적 실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 특히 유식불교가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점이다.

-객관적 실재는 없다. 각자의 세계가 다르다. 다만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어떠한 업 때문에 조금씩 겹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없다. 더구나 불교는 이 모든 차이점을 포괄하는 하나의 객관적 실재도 없다고 본다.

-어떤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의 다른 삶과 세계가 펼쳐질 뿐이다.

(3교시)

◆금강경 독해

※학습목표: 금강경 독해로 불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佛告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降伏其心」

-불고수보리 제보살마하살 응여시항복기심

-붓다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붓다의 제도

「所有一切衆生之類 若卵生 若胎生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 若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소유일체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비무상 아개영입무여열반이멸도지

-모든 중생의 태어난 방식의 종류인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에서 태어난 것, 형색이 있는 것, 형색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제도하리라.

▲제도함이 없음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여시멸도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득멸도자

-실로 내가 제도했지만, 제도한 사람이 없구나.

▲보살의 경지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왜냐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은 무아사상을 더 자세히 나눈 것이다. 우리가 보통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로 나뉜다.

-아상: 모든 경험의 배후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내가 아니다. 오온의 가함으로 만들어졌다가 꺼지는 것뿐이다. 이러한데도 일련의 나, 실재하는 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다.

-인상: 자타의 구분에서 오는 나이다. 개체로서의 나, 구분되어지는 나가 있다는 말이다. 주

객의 이원적 구조를 상징한 것이다.

-중생상: 산스크리트어로 Sattva. 유정이다. 감정과 인지적 능력이 있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나'라는 개체를 생각한다. 감각작용이 멈추어 있을 때, 중생상은 멈춘다.

-수자상: 산스크리트어로 jiva다.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양의 soul 개념이다.